

카카오택시 광주 진출 1년 “대항마가 없다”

300대로 시작 1200대 운행... 일 평균 콜 1만회 상회 택시조합 ‘리본택시’ 2450대... 콜 수 10분의 1 수준 전국 최초 플랫폼 노조 출범... ‘타다’ 진출 영향 촉각

전국 2800만 회원을 보유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광주에서 가맹사업을 벌인 지 이달 말로 1년이 됐다. 지난해 4월 300대로 시작한 자동배차 서비스 ‘카카오 T 블루’ 택시는 일 년 새 4배 넘는 규모로 늘어났다.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80%를 독식하게 된 카카오가 최근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유료화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광주 법인택시 76개사 가운데 호출 플랫폼을 도입한 회사는 40곳이 넘는다.

카카오 T블루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광주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내놓은 ‘리본택시’는 40개 법인, 2450대가 이용하고 있다. 택시기사에게 별도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게 특징이다.

부르는 즉시 택시가 배정되는 ‘자동배차 서비스’를 내건 카카오 T 블루 가맹사업에는 광주 30여 개사가 참여한 상태다. 운영되고 있는 택시는 120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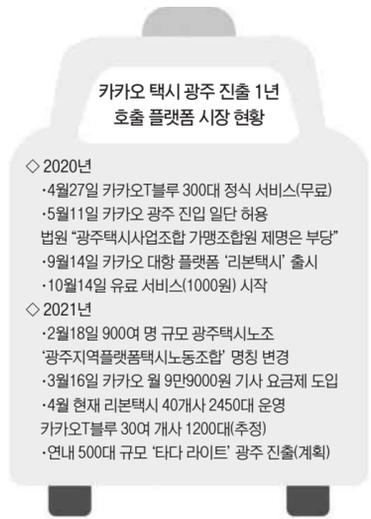
대 규모로 추정된다. 걸음으로 보면 리본택시 규모가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카카오는 독점적 플랫폼 지배구조를 활용해 광주에서 10배 넘는 콜(호출)을 가져간다.

하루 평균 카카오 택시 호출량은 1만회에서 수만 회로 추정된다. 리본택시 호출량은 1200회에서 많게는 1500회로, 카카오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마저도 기사가 실제 손님을 받는 ‘콜 성사율’이 50~70%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리본택시’를 개발한 티원모빌리티는 최근 신용 카드 자동결제 도입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 이달 ‘반반택시’ 운영사인 코나투스와 합병을 발표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카카오 T 블루가 광주에 도입된 1년 동안 택시 노동계는 ‘지각 변동’을 겪었다.

900여 택시기사가 가입된 ‘광주시 지역택시노조’는 지난 2월 조합 이름을 ‘광주지역 플랫폼택시



노동조합’(이하 플랫폼 노조)으로 바꾸고 광주시에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했다. 이는 카카오 T 블루와 리본택시 등 플랫폼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로 조합을 구성한다는 취지

로, 전국에서 ‘플랫폼 노동조합’을 내건 사례는 광주가 처음이다.

480명 조합원을 지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연맹 광주지역본부도 최근 규약·규정을 바꿨다. 기존 택시운송사업 및 관련사업 종사자로 조합원을 한정했던 기존과 달리 플랫폼 운송사업 등 ‘모빌리티산업 관련 모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다. 한마디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택시기사와 대리기사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겠다는 뜻이다.

잠정했던 카카오와 택시 업계 사이에는 최근 들어 다시 질은 전운이 드리웠다.

지난달 16일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배차 혜택을 주는 월 9만9000원짜리 요금제 ‘프로 멤버십’을 출시했는데, 택시 업계는 이를 사실상 강제 유료화로 간주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을 포함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청와대와 국회, 카카오 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및 규약 집회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택시 기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배차 문제에 있어 어떤 형태든도 혜택이 주어진다 안 쓰고 배길 도리가 없다”며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하

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배경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방적으로 호출 서비스를 유료화했다. 이는 예상했던대로 택시요금 인상 수수를 벌이 국민 부담을 높일 것”이라 주장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프로 멤버십’을 지난달 16일 출시한 지 나흘 만에 전국 2만명 가입자를 모았다. 한편 또 다른 택시 호출 플랫폼인 ‘타다 라이트’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주)는 최근 광주의 한 운수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진출 계획을 세웠다.

타다 라이트는 카카오의 수수료가 3.96%에서 1%포인트 가량을 인하한 ‘3% 수수료’를 내세우고 있다. 연내 법인택시 300대, 개인택시 200대를 포함한 총 500대 규모로 진출할 방침이다. 가맹본부 측은 광주 법인 10개사가 ‘타다 라이트’ 동참 의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지역 가맹본부인 GJT모빌리티는 지난해 하반기 목표와 순천 등 전남 진출을 본격화했다. 앞으로 여수나 나주, 담양 등지로 가맹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존 법인택시만 가맹에 참여한 것과 달리 개인택시에도 문을 열 방침이다. 개인택시 기사까지 카카오 T 블루 가맹에 참여하게 되면 운영 대수는 전체(8300대)의 30~40% 수준인 2500대에서 3000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광주은행 송중욱(가운데) 은행장과 11기 대학생 홍보대사 30명은 지난 28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발대식을 열고 고객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홍보대사는 오는 11월까지 7개월 동안 비대면 홍보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전남 신협 동반성장제도 활성화 협약

광주·전남 신협들이 협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8일 담양 리조트에서 ‘신협 동반성장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문규 지역본부장과 광주·전남지역 동반조합 22곳, 성장조합 33곳의 이사장 및 실무 책임자가 참석했다.

‘신협 동반성장제도’는 지난 2015년 시작한 뒤 올해 4기를 맞았다. 신협 간 결연을 강화해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협약 내용은 ▲신협 간 상생 협력하는 문화 구축

▲신협 간 인건교류 및 합동실무교육 ▲지역사회활동·사회공헌활동 공동기획 및 참여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전남 25개 신협이 2141억원 규모 ‘대출 나눔’과 11차례에 걸친 여수신 실무교육 및 워크숍을 벌였다.

이들은 사회공헌과 공동 홍보를 벌이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동반성장제도는 광주·전남 신협이 제시하고 있는 ‘동반성장’ 슬로건을 기반으로 신협만의 철학과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도”라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호연대와 협력 속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내년 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 ‘절반으로’... 분할상환 뎀 유지

내년 7월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만 분할상환 구조를 선택하면 현행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2023년 7월 개인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신용대출 DSR 산정 체계를 변경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1년마다 갹신되는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도 관행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신용대출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이어서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시장 충격이 없도록 올해 7월에는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다시 낮춘다.

10년에 걸쳐 갹는 돈을 5년에 갹기 때문에 1년에 갹아야 할 원리금이 2배로 늘어나는 구조다. 소득 등 상환능력에 변화가 없다면 대출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분할상환과 약정 만기 연장 등을 통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남겨줬다.

금융위는 분할상환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 만기 조정(1년~3~5년)을 통해 대출 취급 관행에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학연금 희망·용기주는 글 공모 3일부터 ‘TP소통글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오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TP소통글판(여름편) 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대내외 공모를 통해 나주 본사 외벽에 ‘TP소통글판’을 게시하고 있다.

지원작은 계절(여름)에 어울리며 정서적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면 된다.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 글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5월 중으로 최우수작, 우수작 각 1편씩 총 2편이 선정된다. 당선자에게는 총 50만원 상당 은누리상품권이 주어진다. 최종 당선된 최우수작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사학연금 나주 본

사 정문 외벽에 걸린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tp.or.kr) 공지사항 또는 사학연금 공식 SNS채널(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74.07 (-7.40)
↓ 코스닥	990.69 (-7.58)
↑ 금리(국고채 3년)	1.121 (+0.016)
↓ 환율(USD)	1108.20 (-4.8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